





신년의 기쁨속에 1월의 날과 날을 맞고보내는 온 나라 사람들이 노래 《발걸음》에 애국의 몸과 마음을 따라세우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기가 1월에 끝없이 부풀고있는 것이다.

척척척 척척 발걸음  
우리의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호모와 신뢰,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심이 비낀 《발걸음》은 세기를 이어, 세월을 이어 령도자복, 태양복을 누리는 민족의 크나큰 행운과 영광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진 송가이다.

무릇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 생활의 분출이고 시대의 반영이 노래일진대 이 나라의 가정과 생산현장, 교정과 예술무대, 조국방선의 초소 할것없이 그 어디서나 울리는 《발걸음》노래는 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의 매혹된 념의 분출이다.

김정은원수님은 비범한 사상 리론적자질에 있어서, 출중한 령도적품모에 있어서 그리고 고매한 덕망에 있어서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이시디다.

그이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해 다방면적이고 특출한 실력을 소유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국과 겨레가 나아가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애국애족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

#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는 발걸음

다. 그이의 로작들에는 수령영생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와 일심단결과 불매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비롯하여 강성국가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지난해에 공화국이 국제체육 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오늘의 현실도 체육 분야에 밝고 체육사업을 중대사의 하나로 여기고 내세우시는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이야기하는 모란봉악단의 뛰어난 실력과 세계적인 공연수준도 음악예술의 천재이신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산물이다.

지난해에 있는 제1차 원동 국제군악축전에 참가해 대절 찬속에 공연하고 축전상을 수상한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공연과 레식을 본 로씨야연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악을 사랑하시고 군악에 조예가 깊은분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일찍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과 애국의 길에 함께 계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군의 길, 강성부흥과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견고걸으며 시대와 인민앞에 령장의 령군품모와 정치가의 뛰어난 령도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조국수호와 민족의 강성부흥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헌신은 송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의 발현이



다.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 을 퍼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그이의 발걸음에 의해 나

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자그마한 목선으로 장제도와 무도에 대한 시찰을 단행하시고 반공화국친탁세력이 조국의 신성한 령도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으로 넘어가 조국 통일대전으로 이어가도록 명령을 하달한 령도자의 철의 의지와 강인담대하고 태연자약한 기상과 드센 배정을 노래 《발걸음》이 그대로 담고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총횡무진하며 무적의 총대대로 반공화국친탁세력의 기를 꺾어놓게 하시고 오늘은 건설장과 공장현장, 인민들속으로 찾아가시어 창조와 비약으로 고무격려하시고 사랑과 인덕을 베푸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은 불가능을 모르는 단숨에의 기상과 우주정복정신과 같은 세월을 앞당기고 세기를 주름잡는 의기양양한 기세와 폭발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지위에 오르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쳐

고있다. 때문에 령도자의 위인상을 구가하고있는 《발걸음》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심장의 메아리, 시대의 진군가로 울리고있는 것이다. 한편의 송가에 비낀 령도자의 위인상은 온 민족과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받고있다.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보낸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없이 즐겁하면서 도 예지에 넘치기 끝없이 겹쳐져 감히 하시면서도 천하를 다스

려야 할 것이다. 한편의 송가에 비낀 령도자의 위인상은 온 민족과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받고있다.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보낸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없이 즐겁하면서 도 예지에 넘치기 끝없이 겹쳐져 감히 하시면서도 천하를 다스

려야 할 것이다. 한편의 송가에 비낀 령도자의 위인상은 온 민족과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받고있다.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보낸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없이 즐겁하면서 도 예지에 넘치기 끝없이 겹쳐져 감히 하시면서도 천하를 다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 1. 뚝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월에 즈음하여 로씨야, 수리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방글라데시에서 좌담회, 집회, 토론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통일로씨야당 나호트까지부 정치리사회 비서는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선군의 기치따라 조선이 나날이 비약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당성당 전국지도

리사회 총서기는 조선인민은 수령복, 령도자복이 있는 행복한 인민이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어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당과 인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라니당 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 조선의 당과 국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은 김정은령도자는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을 받들어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시위하도록 하시었다. 그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기여이 이룩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 연구회 서기장은 2012년은 김정은 원수 각 하께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계승하여 조선의 국력을 비상이 높으신 뜻깊은 해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원수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은 더 많은 위성들을 계속 쏘 올릴것이라고 토론하였다. 본사기자

세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추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기쁨과 희망이 래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눈이라 해야 하겠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조국의 한 해는 이 땅우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력사적사건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뜻깊은 해였다. 무슨 힘으로 이 나라의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인덕에서 역세계 일어서 《체제불안정》, 《북붕괴》를 운운하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는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발걸음으로 몸과 마음을 합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고 빛내이려는 송고한 애국충정의 결심과 의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공화국의 천만군민에게 심어주시고 온 한해 그 길에서 인민들과 팔을 끼고 어깨 결고 정사를 돌보고 인민들을 보살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1mm의 편차도 없이

복해주시기에 강성국가건설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안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을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그 길에서 이 나라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에 최첨발전초와 조선인민군무장장비, 인공지구, 룡라인민유원지, 양정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

경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일심동체가 되며 애국애족위업을 실현하는것은 공화국의 력사이고 전통이다. 공화국은 재부흥의 가장 큰 재부,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천하지대본인 령도자와 인민의 철통같은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변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신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힘에 조국의 변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중점도 없이 완전성공시키는 패승을 이룩하였다.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판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100% 국산화되고 겨울철의 혹한속에서 주 변국가들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위성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 경이적인 사변은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을 온 세계에 떨친 장거였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창천거리를 세우고 인민극장과 룡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연, 태권도성지춤과 양각도체육촌,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 평양산림 유원지, 평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 센터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새로 완공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콤플렉스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며 생산성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의 기상과 힘의 원천이 자기 령도자의 뜻과 구상을 천만군민이 애국충정으로 받들고 따르는 혼연일체에 있다.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록에 승리만을 आरो세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물려가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며 불매의 힘의 원천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현실은 바로 강성부흥으로 조국의 강성부흥을 마련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애국의 길에서 보다 크고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요즘 날씨는 맵짜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세해 전 소한무렵의 그날이 되새겨지면서 마음은 후피기만 하다. 1월 5일, 그날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서 있는 땅크훈련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금치 못했었는가. 나는 지금 그때의 룡화장면을 다시 보고있다. ...땅크들의 전술대형을 선두에서 이끌어 변개치듯 달리는 951호땅크! 드넓은 얼음판도 산산조각을 내고 가파롭게 비탈진 곳의 눈무지도 가볍게 헤치며 전진한다. 951호의 장쾌한 명중포성이 연이어 울리는 속에 목표마다 부수져 하날가에 가랑이처럼 흩날린다. 그날 참관자들은 951호의 모습을 보며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여느때와 다르게 두각을 내며 용감무쌍하게,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적진을 들부서버린 951호, 저 땅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속에 땅크의 문을 열고 나서며 전투모를 벗으시는 그이, 땅크연습의 절은 포화를 가시며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그이는 아, 명명한 김정은원수님이시었다. 《와!》 만세소리, 박수소리... 《글쎄 그렇겠지. 김대장께서 다했으니 무척쉽기 롱마처럼 달리누만.》 사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그들의 확신을 더더욱 굳혀주기라도 하듯 포연서린 훈련장의 산너머에서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노래소리며 트랙터들의 동음소리가 경쾌하게 울려오

고있었다. 또 한분의 백두령장의 선군포성으로 지켜가는 전야의 창조의 숨결소리였다. 어찌 창조의 숨결만을 지켜간다고 하랴. 해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으나 천황애국명장의 선군지와 담력, 군사적예지앞에서 이 땅에 전쟁의 불집을 감히 터치지 못하고있으니 선군의 그 포성은 삼천리강토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가는 조국수호의 포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원수님께서서는 북남공동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전체 인민이 애국의 지성과 힘을 다해 2012년을 조국통일에 길이 빛날 력사의 해로 빛나게 축하하고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맞이한 2013년이다. 앞을 보는것도 회망치지만 걸은 길, 승리에 대한 감회도 새롭다. 지난해말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계단발리, 케도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소한 부

평양양말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순천화학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생산기지들에서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동음을 높이 울리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조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강철

릴 영웅남아다운 담대한 기상이 넘쳐나는 위인상을 비오면서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신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해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미국 조지아종합대학 교수 박한식동포는 《김정은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전의 정책은 중단없이 계승될것이며 주체와 선군은 성한 령도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으로 넘어가 조국 통일대전으로 이어가도록 명령을 하달한 령도자의 철의 의지와 강인담대하고 태연자약한 기상과 드센 배정을 노래 《발걸음》이 그대로 담고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총횡무진하며 무적의 총대대로 반공화국친탁세력의 기를 꺾어놓게 하시고 오늘은 건설장과 공장현장, 인민들속으로 찾아가시어 창조와 비약으로 고무격려하시고 사랑과 인덕을 베푸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은 불가능을 모르는 단숨에의 기상과 우주정복정신과 같은 세월을 앞당기고 세기를 주름잡는 의기양양한 기세와 폭발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지위에 오르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쳐 고있다. 때문에 령도자의 위인상을 구가하고있는 《발걸음》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심장의 메아리, 시대의 진군가로 울리고있는 것이다. 한편의 송가에 비낀 령도자의 위인상은 온 민족과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받고있다.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보낸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없이 즐겁하면서 도 예지에 넘치기 끝없이 겹쳐져 감히 하시면서도 천하를 다스

려야 할 것이다. 한편의 송가에 비낀 령도자의 위인상은 온 민족과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받고있다.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보낸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없이 즐겁하면서 도 예지에 넘치기 끝없이 겹쳐져 감히 하시면서도 천하를 다스

본사기자 한영수

## 9 5 1 !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체102(2013)년 신년사중에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입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입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입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자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주체인 전체 조선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가 명백히 밝혀져 있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

록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관통되어있는 우리 민족끼리련에는 온 겨레가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립장에서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며 굳게 손잡고 단결합대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불신과 대결이 흐르던 이 땅에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자량찬 결실이다. 6.15공동선언 발표후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데서 특기할 민족사적사건으로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철

저히 리행할 때에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과감하게 전진해온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해온 남조선보수당국은 극도의 동족대결책동과 화약내 풍기는 북적전쟁영성을 띠어 감행하면서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전쟁집경에로 몰아갔다. 시대착오적인 발표후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데서 특기할 민족사적사건으로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철

있는 조치들을 《진정성결여》니, 《전술적변화》니 하고 헛됨으로써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

6.15시대의 암적존재인 리명박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는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지나온 북남관계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과적리행을 떠나 북남관계전진과 조국통일에 대해 결코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본사기자는 며칠전 한국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회견하였다.

기 자: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년사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북남관계문제해결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신것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온 민족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한 국 철: 그렇다.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연설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오늘날 조선반도가 처해있는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며 통일문제를 옹호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주시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이의 신년연설을 받아안은 전 민족이 그렇게도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통일된 삼천리조국강산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념원과 민족의 통일의 지향점을 그대로 체현하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시다. 원수님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하신 이번 신년연설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데서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투쟁의 전 투적기치이다.

기 자: 북남관계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가 아닌가.

한 국 철: 조국의 평화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북남관계문제가 그처럼 중요하기에 우리 공화국은 민족이 분열된 후 오 늘까지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

인 관계로 전환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종일관하게 기울여왔다. 그것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낳았다.

기 자: 6.15통일시대에는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한 국 철: 옳다. 북남관계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풀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려는 우리 겨레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탄생시키는 민족사적인 사건들을 안아왔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서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6.15통일시대에는 자주통일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안고 태동한 민족의 통일전성기라고 말할수 있다.

기 자: 그 모든것이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났으니 그래서 남은 물론 온 겨레의 통탄과 지란이 큰 것이 아니겠는가.

한 국 철: 지난 시기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북남관계를 《체안정》과 재집권야망실현의 통탄으로 삼아왔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을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그것이 진정성있는 것이라면 그 실행에 전제와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력대 보수집권세력은 이러저러한 그 무슨 《전제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상으로는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말살하여왔다.

이제 더는 그것을 허용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라고 밝히시었다.

북과 남이 서로 굳게 손잡고 확약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야말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더없는 리정표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공동선언리행에 북과 남의 관계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의 답이 있으며 조국통일의 대안도 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 북남관계의 전진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가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한다.

## 북남관계전진과 통일을 위한 근본전제

게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해왔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다 밝혀져 있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 새해 첫아침에 울려 퍼진 통일노래

공화국이 대박악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주체102(2013)년 1월의 첫아침. 통일노래가 겨레의 심장속에 울려들었다. 지난해 7월에 혜성처럼 첫 시범공연의 막을 올린 때부터 뜻깊은 사변들에 노래의 축포를

울린 모란봉악단은 이번 신년공연에서 첫 통일노래무대를 펼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첫 신년사를 접한 뜻깊은 시각에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통일의 열망으로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가수들의 심장에서 흘러나와 만사람의 심장으로 흘러드는 심장의 언어는 하나였다. 연주가 들도, 객석을 꽉 채운 관람자들도 파도치는 통일의 격류가 되어 노래와 함께 열광하는 통일연의 분출이었다. 통일의지의 파시였다.

## 통일기상을 보다

모란봉악단의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 공연장에 높이 울렸다.

펼칠 때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조국통일기상이 삼천리에 뻗는다. 민족의 존엄이 우주에 닿은 조국 땅에 울려 퍼진 통일노래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1세기 통일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갈 민족의 역센 기상을 담아 힘차게 울려 퍼졌다.

## 통일의 모습

조직원지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독특한 얼굴과 막강한 창작실력을 가진 몇몇이악단으로 새 세기 조선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판목있는 예술단체로 일약 솟아오른 모란봉악단은 겨레의 통일열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겨레의 사랑을 받은 녀성연주자들과 가수들의 열정과 광만이 넘친 세련된 예술적형상과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연은 장중하고 품만한 울림으로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며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의 황홀한 예술세계를 펼쳐냈다.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을 가슴우르며 보여주었다.

통일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통일의 모습이였다. 통일노래의 격랑을 일으키는 통일의 바다였다. 모란봉악단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함께 통일에 함께한 남녘의 수많은 열혈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 겨레 살리는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북녘의 동포들과 일색안았던 그들이 온 겨레를 뒤흔들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원한의 분개선장비를 몸으로 뚫었던 통일의 함령이, 할아버지들, 통일의 꽃들, 통일의 불새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통일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통일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는 맹세가 차넘치는 공연장이었다.

통일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통일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무대우에 노래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질 때 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유훈으로 남기신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중들의 얼굴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 하고 한나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민족의 뭉친 힘 온 세상에 호하는 그 모습은 감격스러운

통일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사회적문제이기도 하다.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더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용암처럼 끓는 통일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분자들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발붙일 곳이 없다. 민족의 대의를 따르자. 새해 첫아침 민족의 통일대합창이 삼천리강산에 울려 퍼진다. 유병호



#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과 멸을 면치 못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경사를 함없는 궁지와 자부심, 환희속에서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통일되고 변명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적패당이 남해북두부대 동족대결소동과 전쟁책동을 미친듯이 벌려놓아 내외의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림종에 처한 산송장무리들이 리명박역적도와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 통일부 장관 류우익을 비롯한 대결파신자들은 《북방한계선》 사수니, 《북의 성동격서식도발》이니, 《북의 나쁜 선택》이니 뉘니 하는 악의에 찬 도발적말발을 제쳐대면서 광기를 부리는가 하면 전선서부와 동부에서 그 누구에 대한 《음성》을 떠들며 땅크와 장갑차를 끌어내 포실탄사격훈련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인강쓰레기들을 내몰아 또다시 배라살포소동을 벌리고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환희로운 축제가 터져오르고 행복과 영광, 통일의 노래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평양과 동쪽을 거닐던 전쟁연습의 대포소리, 화약냄새가 뒤덮인 남조선, 이 얼마나 대조되는 현실인가.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광란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때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호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온 민족과 함께 새해 정초부터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 있는 천하의 호전광들인 리명박패당을 준렬히 단죄구판한다.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 5년간 민족앞에 지은 엄청난 죄악도 모자라 송풍이 끊기는 마지막순간까지 북남관계를 더 큰 파국에 몰아넣고 이어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최후악악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도발적책동에 더욱 매달리고있는것은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다음 《정권》이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

력사에는 악한과 폭군, 호전광들이 적지 않았지만 리명박패당처럼 그토록 악랄하고 그처럼 무리한 대결광신의 무리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기에 리명박패당은 일찌기 가장 더럽고 박멸해야 할 쥐새끼무리라는 악명으로 불리우며 비난조소의 대상으로 되었건우며,

리명박패당이 얼마나 민심과 여론의 버림을 받았으면 제 족속들한테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선거에서 《차별화》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만신창이 된 산송장무리의 지랄발광이 이제 어떤 민족의 대제난을 몰아올지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세가 새해북두부대 경각에 이른 지금 온 겨레의 깊은 우려와 지난 5년간의 심각한 교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민족의 재앙을 막으려면 그 화근을 뿌리째 들어내야 한다는것이다.

천치바보와 같이 무지무능하고 동족대결과 불장난밖에 모르는 천하의 역적 리명박쥐새끼무리를 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항시적으로 전쟁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민족은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취무리가 성하면 재난이 들이닥치고 화밖에 가져다줄것기 없다. 쥐새끼무리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한다.

력사의 퇴물이며 더러운 찌꺼기들인 리명박쥐새끼무리를 씨도 없이 완전히 박멸해버려야 남조선인민들이 재앙을 면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수 있다.

둘째,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수 없다는것이다.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며 거스를수 없는 대사이기다.

지난 5년간 리명박역적패당이 대결에 호러질대로 호러진 명명란 논으로 대세를 바로 보지 못하다니 세상이사람들이 경악하는 특대형악행도 서슴지 않은것이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 치닫해 되었고 불과 불이 오가는 참국까지 빚어졌다.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이다. 우리의 아랑과 인내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 군대의 멸적의 기개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된 우리 혁명무력의 단호한 의지를 자자구구 새겨보고 분별을 찾아야 한다.

셋째, 민족의 재앙을 막으려면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힘을 합쳐 반통일대결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겨레는 자랑찬 6.15통일시대를 개척해오면서 민족단합에 평화도 있고 통일과 번영도 있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하나된 강도에서 북력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의 대제난을 불러오는 동족대결은 결코 양립할수 없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조국통일대의 모든것을 북중시하고 지향시켜나가며 반통일대결세력의 전쟁책동을 결성적으로 저지과탄시켜야 한다.

동족대결과 충돌을 추구하는 자들은 과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금후태도를 지켜볼것이다.

주제102(2013)년 1월 3일 평양

남조선집권자가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숨이 지는 마지막날까지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리명박은 집권기간 각종 반민족, 반통일책들을 꾸미는데 공모한 청와대보좌관들을 거느리고 남강원도 화천군의 전연지대에 나가 《팔복할만 한 성장을 하는동안 반대쪽에서는 오로지 전쟁준비만 하고있다.》느니, 《북과 대치하고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느니, 《철저한 안보태세가 있기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림종의 운명에 처한 산송장의 단말마적말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이 지난 5년간 그 어느 력대 집권자들보다 가장 악랄하고 도발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책동들을 민족말살, 동족멸살의 반민족적, 반민족적대적악으로 단죄하면서 남조선집권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할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반공화국말말들을 늘어놓으며 대결선동에 광분하고있으니 리명박이 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등반통일매국노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리명박이 반통일대결발언으로 몸값을 올리려고 악을 써도 산송장이 된 그를 거들떠볼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미 온 민족은 리명박에게 처형결정을 내렸다. 동족대결을 일삼는자에게 차려질것은 처참한 파멸뿐이다.

바라보지 못하고 숨이 지는 마지막날까지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리명박은 집권기간 각종 반민족, 반통일책들을 꾸미는데 공모한 청와대보좌관들을 거느리고 남강원도 화천군의 전연지대에 나가 《팔복할만 한 성장을 하는동안 반대쪽에서는 오로지 전쟁준비만 하고있다.》느니, 《북과 대치하고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느니, 《철저한 안보태세가 있기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림종의 운명에 처한 산송장의 단말마적말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이 지난 5년간 그 어느 력대 집권자들보다 가장 악랄하고 도발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책동들을 민족말살, 동족멸살의 반민족적, 반민족적대적악으로 단죄하면서 남조선집권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할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반공화국말말들을 늘어놓으며 대결선동에 광분하고있으니 리명박이 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등반통일매국노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리명박이 반통일대결발언으로 몸값을 올리려고 악을 써도 산송장이 된 그를 거들떠볼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미 온 민족은 리명박에게 처형결정을 내렸다. 동족대결을 일삼는자에게 차려질것은 처참한 파멸뿐이다.

배영일

## 비정규직, 정리해고철폐를 위한 파업 전개

남조선의 비정규직교수로 조소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영남대학교의 교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철폐를 위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가 마련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규직이 되어야 할 교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강제해고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학교측의 차별책동에 맞서 5개 대학교의 교원들이 일제히 파업투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로 되는 현대판노예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제를 반드시 철폐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와 대학교측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폐하고 교원들의 임금인상하며 교육의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4 대강공사는 최악의 범죄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욱이 쓴 《4대강공사 후유증과 치유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리명박 《정부》가 물과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4대강변공사를 강행해온데 대해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이때문에 땅들이

침수되고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며 수질오염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같은 개탄하였다. 글은 공사를 무분별하게 강행하여 제방을 모래우에 세우다나니 대부분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으며 바다도 설계대로 파내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지난해 12월말 한해도 다 저물어가던 때에 남조선 국방부가 한건의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기도가 로골적으로 드러나있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우려와 불안을 자아냈다.

《2012 국방백서》로 불리는 여기에서 남조선군부당국은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라는 《북주적론》을 또다시 들고나왔는가 하면 조선서해의 《북방한계선》에 대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하였다.

남조선군부가 1967년부터 《국방백서》를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조야박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군해병대는 2012년 12월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하였다. 마지막 정기해상훈련이라는 간판밑에 강행된 해상사격훈련에는 130mm대원장 로케트와 《k-9》 자행포를 비롯한 북을 겨냥한 모든 화력수단들이 총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조선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침도발의 구실로 삼기 위해 꾀어지게 되어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릴수 없듯이 《북방한계선》은 발생경위로 보나 국제법적근거에서 보나 허황하기 짝이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1953년 7월 미국은 공화국으로 향하는 남조선이민들의 배길을 차단할 목적으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를 내세워 조선서해 해상에 《북방한계선》(일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함으로써 《NLL》(《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보다 앞서 1973년 12월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 하비브도 《분쟁수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국가들의 눈에 잘못된것으로 비칠것》이라고 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결국 《북방한계선》은 그 조작경위로 보나 공인된 국제법적규범과 전례에 비추어보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분쟁의 불씨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화근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평을 보장하는 마당으로 만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 상봉과 함께 채택된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

결국 《북방한계선》은 그 조작경위로 보나 공인된 국제법적규범과 전례에 비추어보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분쟁의 불씨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화근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평을 보장하는 마당으로 만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 상봉과 함께 채택된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

결국 《북방한계선》은 그 조작경위로 보나 공인된 국제법적규범과 전례에 비추어보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분쟁의 불씨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화근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평을 보장하는 마당으로 만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 상봉과 함께 채택된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

결국 《북방한계선》은 그 조작경위로 보나 공인된 국제법적규범과 전례에 비추어보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분쟁의 불씨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화근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평을 보장하는 마당으로 만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 상봉과 함께 채택된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

결국 《북방한계선》은 그 조작경위로 보나 공인된 국제법적규범과 전례에 비추어보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분쟁의 불씨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화근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평을 보장하는 마당으로 만드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 상봉과 함께 채택된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이 천명되어있으며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밝혀져있다.

또한 북과 남은 10.4선언 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인민 무력부담금회담과 북남장령 금군사회담을 열고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체질화된 현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귀중한 합의들을 백지화해버린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불씨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까지 되고있다.

오늘 《북방한계선》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나 평화나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조선서해를 평화의 바다, 민족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전액삭감을 주장

남조선의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전액삭감을 주장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당국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세우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현 《정권》이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항구를 민간과 군부가 함께 리용할것이라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으로

서 민중을 우롱하는것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제주도주민들은 자기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땅을 지키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것만을 바라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을 전액삭감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불순한 목적을 노린 무인기판매책동

300kg, 탠두 중량 500kg이상의 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것)대상에 속하였다.

미국이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전례를 깨고 첨단무인정찰기를 남조선에 팔아주려는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것은 《대조선제타격》이다.

라격할수 있게 탄도미사일 등의 사거리를 늘어준것도 이러한 언전선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남조선에 대한 첨단무인정찰기판매책동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과도 떼어놓고 볼수 없다.

지난해초에 발표된 미국 의회 국방전략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및 군

사전략상의의로 보나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는 미국은 이 지역에 명줄을 걸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곳에 미국이 앞잡아볼수 없는 적수들이 있는것이다. 이 나라들을 견제, 제압하지 못하면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라는 것도 빈말로 된다.

본사기자 주광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고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본사기자들이 《〈글로벌 호크〉의 작전반경이 3 000km나 되기때문에 북의 전역은 물론 서울에서 1 000km 이내에는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의 상당지역을 감시할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것》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 최신전투기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는 경우 조선반도에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군비경쟁은 불가피해질것이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 새해의 휘황한 미래를 밝히는 환희의 불보라

## 1월 1일 0시 평양의 여러곳에서 축포발사



↑ 평양체육관광장에서

← 김일성광장에서

↓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에서



4. 25문화회관광장에서



통일광장에서

은 세상에 인공지구위성발사국의 기상을 높이 떨친 이 나라에 새해가 밝았다. 5천년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가득찬 주제101(2012)년을 보내고 새해 2013년을 맞이한 공화국은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디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받아안은 공화국의 인민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갈 신심에 넘쳐있다.

위성발사성공소식은 나라를 격동시킨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났지만 평명성열풍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불고있다.

최상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민족의 존엄을 걸고 단행한 《광명성-3》호 2호기발사는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우주리용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역사적장기이다.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영웅

중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고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5천년민족사의 폐승인 인공지구위성(광명성-3) 무리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중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고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5천년민족사의 폐승인 인공지구위성(광명성-3) 무리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중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고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도진입에서 완전성공한 것처럼 무연탄가스화공정실현에서 강선의 본래를 보이자고 일며였다.

직장장 진영일은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실천한 자랑찬 성과를 강선의 로동계급입니다. 우리는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

아온 위성발사자들의 투쟁기품을 본받아 새해에 무연탄가스화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 올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디서나 들려오는 광명성 열풍에 대한 이야기이다. 올해에 우주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친 우주정복자들처럼 새로운 품종의 종자육종과 선진적인 재배방법,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을 개발할 결의에 불타고있는 농업과학원과 국가과

학원 생물공학본원의 연구사들이며 프로그래밍과 미소전자기술 등 첨단기술개발에서 새로운 경지를 이룩할 결의한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만이 아니다.

후서현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은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볼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대하고 올라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해 첫 진군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 없이 개선하여 시대가 부르는 인재들, 최첨단과학기술의 기수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드높이 새해 2013년에 더 많은 성과를 안아오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심이 넘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김노을

학원 생물공학본원의 연구사들이며 프로그래밍과 미소전자기술 등 첨단기술개발에서 새로운 경지를 이룩할 결의한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만이 아니다.

후서현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은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볼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대하고 올라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해 첫 진군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 없이 개선하여 시대가 부르는 인재들, 최첨단과학기술의 기수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드높이 새해 2013년에 더 많은 성과를 안아오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심이 넘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김노을

### 12월 12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 해외동포들의 반향 —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쏘올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없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 조국이 위성발사에 성공하여 그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생각하니 조선민족된 긍지로 온몸에 새힘이 솟는것만 같다. 외신들은 이번이 조선이 세계를 한손에 거머쥐고 놀았다고 평하고있다. 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룩된것이다.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12월 12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김영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부국장)

《나는 중국정부에서 일하지만 조선사람이다.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막 넘

쳐난다. 것처럼 곤란한 속에서 원자탄도 자체로 만들고 인공지구위성도 자체로 만들어 발사하여 성공시키는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놀라지만 하다. 조선은 자체의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조선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랴오운 중국 홍콩강성에 사는 동포)

《조국에서 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TV로 보았다. 대경사이다. 조국인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기 바란다. 역시 조선은 빈말을 안한다. 정말 기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사람으로서 가슴을 짙 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1부위원장)

본사기자



###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진행

주제102(2013)년 새해를 맞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해 주며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 《빛나는 조국》, 경음악과 노래 《설날아 내려라》, 경음악과 노래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여성독창 《불타는 삶을 우

린 사랑해》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 우주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을 감명깊게 보여준 여성중창 《인민은 일편단심》을 비롯한 종목들이 련이어 펼쳐져 공연분위기를 고조시키었다.

본사기자

### 기자: 지난해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새해 2013년을 맞이하였는데 소감은?

방문일: 지난해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은 체육인들과 감독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더운 우리의 체육인들은 지난해 영국에서 진행된 제30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4개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김은국, 엄윤철선수들이 남자력기 62kg급, 56kg급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고 울림픽새기목을 세운데 이어 림정심선수가 여자력기 69kg급 경기에서, 안금예선수가 여자유술 52kg급 경기를 거둔데 대해 세계가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박경옥선수가 제7차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64kg급 경기에서, 리명순선수가 2012년 중국공

###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기자: 지난해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새해 2013년을 맞이하였는데 소감은?

방문일: 지난해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은 체육인들과 감독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더운 우리의 체육인들은 지난해 영국에서 진행된 제30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4개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김은국, 엄윤철선수들이 남자력기 62kg급, 56kg급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고 울림픽새기목을 세운데 이어 림정심선수가 여자력기 69kg급 경기에서, 안금예선수가 여자유술 52kg급 경기를 거둔데 대해 세계가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박경옥선수가 제7차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64kg급 경기에서, 리명순선수가 2012년 중국공

### 체육성 국장과 나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우리 체육인들은 람홍색공화국을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렸다.

기자: 온 나라에 세차게 불어치는 체육열풍도 체육발전을 추동하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더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본다.

방문일: 지난해 11월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국가조직조치가 취해진것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 체육과학화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체육선수후비를 전명성있게 키우는 사업, 체육선수들의 훈련과 국제경기를 위

### 이야기 \*

한 국가종합훈련을 강화하는 사업, 국내체육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 체육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 등 나라의 체육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맡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12차 전국인민체육대회 추경결승경기를 보아주시고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평양시에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센터, 양각도체육촌이 새로 일떠서고 나라의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꾸려졌다. 월미도체육단에 인공잔디를 바닥에 깔고 판람석에 태양을 띄운 멋진 축구경기장이 새로 갖추어졌다.

평안남도에 평성경기장을 비롯한 많은 체육경기장소들이 신설 또는 개건되었다. 평안북도에서는 차광수신의 주제1사범대학에 새 품종의 잔디를 입힌 2천석의 축구경기장을 번듯하게 건설하고있으며 사리원시, 함흥시를 비롯한 도, 시, 군들에서도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번바람이 불고있다.

기자: 체육인들과 감독들의 그 양양된 열의가 올해에 있게 될 국제경기들에서 남김없이 발휘될 때 승리는 문재없다고 확신한다.

방문일: 올해에 우리 선수들은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제2차 아시아청소년력기경기대회를 비롯하여 20여개 종목의 아시아선수권대회와 10여개 종목에 걸치는 지역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체육인들과 감독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다. 우리는 김정은원수님의 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훈련에서 더 많은 맘을 흘림으로써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를 금메달로 빛내이겠다.



###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력사 종합교양구예서

평양민속공원에 대한 참관은 력사종합교양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민족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집약화한 력사종합교양구의 9개의 대형모자이크벽화들은 평양민속공원의 서문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

###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

대형모자이크벽화 《우리나라는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에는 대동강류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넓은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 발해》, 《첫 통일 국가 고려》, 《리조》, 《근대 -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 《평양의 민속》으로 구성된 벽화들은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풍속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고있다.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보여주는 유적분포도며 《력사사람》(고인, 구

석기시대 중기), 《승리산사람》(신인, 구석기시대 후기), 《만달사람》(조선옛류형사람, 신석기시대)의 모습이 있다. 우리 조국에서의 인류발생을 확증하는 많은 유적들을 찾아냈것은 고고학에서 자랑할만한 성과로 된다.

공화국북반부에만도 덕산유적, 서포항유적, 석성리유적, 승리산유적, 금평동굴유적, 표대유적, 검은모루유적, 대홍동굴유적, 대현동유적, 룡곡동유적, 지탑리유적 등 많은 유적들이 있고 남

쪽에도 전곡리유적, 정밀동굴유적, 삼시유적, 석장리유

적, 두루봉유적 등이 있음을 벽화가 보여준다. 공화국의 고고학자들은 1960년대에 상원군 흑우리에 서 지금으로부터 100여만년 전 원인들이 살던 검은모루유적을 발굴한데 이어 고인쇄와 신인의 화석을 발굴함으로써 조선반도 특히 대동강류역이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사람들이 구석기시대 후기의 신인에 연원을 둔 조선옛류형사람들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학자들은 또한 대동강류역이 이 고장에서 살던 구석기시대 후기의 신인에 연원을

둔 조선옛류형사람들의 본고장이며 그들의 창조적로동과 슬기, 지혜에 의하여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신석기시대문화와 높은 수준의 금속문화를 창조한 청동기시대문화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련면히 발생발전되어온 원시문화의 발전지, 그 중심지였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없었다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주의 주장이 우리의 력사를 왜곡화해하려는 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것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김영이실장(32살)의 이야기이다.

벽화에는 원시시대사람들의 생활모습이 그려져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라석시기를 만들어 로동활동에 리용하였다. 구석기시대는 라석시기를 주되는 로동도구로 쓰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인류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원인과 고인단체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에 원시무리가 형성되었고 신석기시대에는 현대조선사람의 선조인 조선옛류형사람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를 거쳐온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박 단 희 (다음호에 계속)

## 우주정복자들도 한때는

### 세계명작동화집을 즐겨 읽는다

책읽기열풍이 일고있는 요즘 세계명작동화집에 대한 독서열의가 높아지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세계명작동화집(1권~60권)은 지금까지 동서양에서 창작되어온 값고많은 동화작품들 가운데서 우수한 사상에술적특성으로 하여 당대만이 아니라 후세에까지 전해져오는 명작들을 묶은 도서이다.

세계명작동화집에는 《승냥이와 일곱마리의 새끼염소》, 《꿀벌이삼형제》, 《이스프리아기》, 《신데렐라》, 《못 생긴 새끼오리》, 《알프스의 소녀》, 《시집가는 쥐》, 《미인과 야수》 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주는 60권의 동화들이 들어있다.

공화국에는 세계명작동화집이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구역도서관들과 각 도, 시, 군 도서관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도

서실들마다 비치되어있어 누구나 읽고싶은 동화작품들을 볼수 있다.

하진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

도서관에서 해지는줄 모르고 동화의 세계에 깊이 침취된 나 어린 독자들을 볼수 있었다. 만경대구역 갈림길중학교 2학년에는 다닌다는 김남철 학생은 《갈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난쟁이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재미나게 읽고 있었다.

그는 《원래 작가는 이 작품을 어른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당대 인간사회를 단평이 아니라 거인의 나라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풍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담고있고 흥미있는 내용을 담은 이 이야기 그 매력으로 하여 어느새 우리 학생들에게 더 친근한 작품으로 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난쟁이나라에 가보기도 한것처럼 손세를 써가며 생동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남철학생의 뒤척상에 앉은 리영순(만경대구역 축전소학교 4학년 2반)학생은 영국의 제임스 베리가 쓴 세계명작동화 《피터팬》을 열심히 읽고있었다.

하진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

하고 행동하는가 하면 현실에서 볼수 없는 기이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펼쳐보이는것을 통하여 신기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에 대한 인식을 주고 진취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며 나케치는 꿈과 희망, 포부를 안겨주는 세계명작동화집이나 학생소년들의 심리에 맞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적에 있는 일을 아름답게 추억하며 그것을 꿈처럼 소중한것으로 간직하고싶어한다. 동화작품들이 스며있는 그런 감정이 지금도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 같다.》며 이곳 도서관의 백영희사서는 저마다 세계명작동화집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것으로 말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로소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즐거 찾는 세계명작동화집은 리영순(만경대구역 축전소학교 4학년 2반)학생은 영국의 제임스 베리가 쓴 세계명작동화 《피터팬》을 열심히 읽고있었다.

하진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

본사기자



눈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세나라시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것을 대설이라고 하였으며 눈의 깊이를 재는 단위를 자(척)로 하였다. 자에 의하면 192년의 음력 4월에는 경도(경주)에 석자(한자는 30cm정도)의 눈이 내렸다고 하였다.

눈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기부터 더욱 구체화되어 대설, 우설(눈비), 우박으로 구분되었다. 《고려사》에는 고려시기에 대설이 15회, 우설이 13회 있는 가운데 1363년 음력 2월의 대설은 그 깊이가 석자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리조시기에 대설이 10회 있었는데 대해 분석하면서 1453년 1월에는 눈이 3~4자나 내려 짐승들이 집안으로

들어왔으며 1526년 1월에는 눈이 길쭉, 명진, 경성 등지에 4~5자나 내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중시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것이 풍년의 징조로 되어왔으므로 이와 관련한 속담도 여

러가지로 전해지고있다. 사람들은 《랍설은 보리를 잘 익게 하고 춘설은 보리를 죽인다》고 하였다. 옛날에 동지가 지난 후 24~36일사이에 오는 날을 랍설이라고 하였다. 랍설은 음력 12월에 내리는 눈을 이르는것으로서 추위로부터 보리를 보호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여 풍년이 들게 한다는것이였다.

또한 사람들은 《함박눈이 내리면 따뜻하고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함박눈이 내리면 대기중의 온도가 더워져 그해에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며 풍년이 들뿐 아니라 살기가 좋을것이라는것이였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아이들이 눈싸움과 눈사람만들기를 즐겨하였다. 눈싸움은 서로 편을 갈라 눈으로 진지를 형성하고 공격과 방

어를 거듭하는것으로서 몸을 단련하는데 좋았다. 눈사람만들기는 혼자서도 하지만 서너명씩 조를 짜서 내기를 하기때문에 협동심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눈과 관련한 풍속은 지금도 이어져 사람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하면서 기뻐하고있다.

본사기자

### 유모아

#### 신랑의 노래 연습

첫날밤

신부: 《우리 고을풍속에 혼인을 하면 그 이튿날에는 동리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랑에게 노래를 시키니 부디 노래를 잘 불러 육을 보지 마세요.》

신랑: 《난 노래하는것은 고사하고 노래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을가?》

신부: 《그러면 내가 몇마디 가르쳐줄터이니 그대로 하세요. 술일은 푸르르고...》

신랑: 《큰소리로 《술일은 푸르르고...》

장기는 우리 민족이 즐기는 대중음악의 하나이다.

한여름철 서늘한 나무그늘아래서 혼수군들이 둘러싸인채 《장훈!-》, 《명훈!》하며 승벽내기로 장기를 두는 모습은 그야말로 멋들어진 풍경이다. 이를 두고 예로부터 《장기훈수는 뺨을 맞아가면서 한다》는 속담도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장기를 단순한 오락으로만 볼수 없다. 조선장기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격과 행동방식, 례의도덕, 군사사상 등이 종합적

신부: 《놀라며》가만가만히 부르세요. 안방에서 다들겠어요.》

신랑: 《이 말도 노래구절인줄 알고. 《가만가만히 부르세요. 안방에서 다들겠어요.》

신부: 《역중내며》《지리도 못났네.》

신랑: 《지리도 못났네.》 신부가 그만 어이없어 웃으니 신랑도 따라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웃는것을 보니 내가 노래는 무던히 하는 모양이구만.》

## 조선장기에 깃든 민족의 슬기

로 반영되어있으며 조선사람의 기질과 문화슬기가 깊이 침투되어있다. 이미 고려시기에 널리 보급된 우리 나라 장기는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는 시팔로인들의 소일거리로 크게 유행되었다.

조선장기쪽의 글자는 한쪽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다른쪽은 검은색 혹은 푸른색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교대음양철학관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 즉 붉은색은 《양》을, 검은색은 《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를 둘 때 흔히 옷사람에게 붉은색쪽을 먼저 권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조선장기에서 《왕(중)》을 둘수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부심이 강하다는것을 보여주며 《상》과 《말》이 서로 위치를 바꿀수 있게 한것은 인재등용과 군사전략에서의 령활성

이 보다 풍부하다는것을 의미한다.

또 한쪽편 《졸》이 서로 붙어있고 《차》가 직접 대방을 공격할수 있게 배치한것은 조선장기에 대충의미보다 실용성을 더 중시하고 방어와 공격을 결합하는 면에서 보다 령활하고 기동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장기의 장기쪽을 쓰는데서 가장 특색이 있는것은 《상》이라고 할수 있

다. 조선장기에서 《상》은 적진에 뚫고 들어가 좌충우돌할수 있는 유력한 공격수역할을 하고있다. 《포》를 쓸 때에도 조선장기에서 같은 포를 뛰어넘을수 없고 또 포끼리 서로 잡아먹을수 없다.

《졸》의 경우에도 조선장기에서는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령역내에서도 좌우로 한구간씩 갈수 있어 그 령활성과 실용성이 감절크고 전투력도 강하다고 볼수 있다.

본사기자

## 민족적정서가 담긴 십장생

십장생이란 문명한 우리 민족이 불로장생을 바라는 의미에서 선정하여온 열가지의 상징적인 사물을 말한다.

십장생의 상징으로는 해, 달, 산, 강, 대나무, 소나무, 거북이, 학, 사슴, 불로초를 꼽고있으며 바위, 구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숭아, 뽕꽃, 모란, 해당화 등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해와 달, 강, 구름은 모두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며 소나무와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등은 장수를 의미한다. 열십자가 장생의 의미로 쓰이게 된것은 동양에서 이수자가 모든 수를 갖춘 기본수가 되는것과 가로까지가는 동

서를, 내리긋기는 남북을 가리키므로 사방과 중앙이 다 갖추어졌음을 뜻하기때문이었다.

십장생과 관련한 기록은 고려시기의 문헌에 처음으로 나온다. 고려말기의 학자 리색이 쓴 《목은집》에는 구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버섯, 거북이, 학, 태양 등의 차례로 제목을 달고 십장생을 찬양한 시가 기록되어있다.

현재 남아있는 십장생과 관련된 그림들은 대부분 리조후반기의것으로서 거기에 산, 바위, 소나무, 구름, 물 등을 배경으로 학, 사슴, 거북이 등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이 그려져있다.

리조시기에는 왕이 설날에 새해를 축하하여 대신들에게 십장생 그림을 주었으며 민간

에서는 이 그림을 문웃죽이나 방벽에 붙여놓는 풍습이 있었다.

십장생그림은 주로 병풍에 많이 그려졌는데 이것을 왕궁에서는 연화대에, 민간에서는 환갑이나 결혼식 때에 썼다.

십장생그림 못지 않게 십장생무늬도 널리 쓰였다. 고려시기나 리조시기의 도자기, 목공예품, 베틀과 부너자들의 노리개, 베개 등에는 거의다 십장생무늬가 새겨져있다.

이와 같이 십장생과 그것을 반영한 그림과 무늬에는 산종교 물자는 아름다운 조국강토에서 자자손손 장수하면서 살려는 우리 선조들의 념원과 깨끗하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보자는데로부터 복받는데를 평생 소원으로 여겼다. 그래서 설이나 기타 명절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법이 전승되어왔다.

오복은 사람이 평생 바라는 복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다섯 가지로서 《수》(장수), 《부》(재부), 《강녕》(건강), 《유호덕》(의리와 도덕), 《고종명》(편안히 죽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리조시기부터 우리 조상들이 오복이란 말을 널리 써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이 장수를 의미하는 《수》를 오복중의 첫자리에 놓는것은 옛날에 의술이 발전하지 못해 일찍 죽는 례가 많고 수명이 매우 짧았기때문에 오래 사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긴데 있

다. 또한 잘살아보자는 의미에서 《부》를 두번째 복으로 놓았으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강녕》도 오복의 하나로 중시하였다.

리조시기 경북공안에 《강녕전》이란 건물을 지어놓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민간에서도 건강을 중시한데로부터 이발이 튼튼한것을 오복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정월대보름날에 밤이나 잣, 호두 등을 깨어먹었다. 이와 함께 이우간에 도덕과 의리를 지키며 남을 도와주는 일을 락으로 삼는 《유호덕》과 제명을 다 살고 편안히 죽는다는 《고종명》도 오복에 포함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 《부》, 《강녕》 다음에 《귀》와 자손이 많은것을 오복으로 하고있다.

본사기자

## 겨울철 원기회복에 좋은 가재미식혜

생선에 곡물을 적당히 넣어 만든 식혜는 바다와 떨어진 산간지대에서는 생선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으로 절여온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 력사자료에 기록된것은 17세기초라고 한다.

식혜는 생선에 참쌀, 좁쌀, 소금, 우유, 생강, 파, 마늘, 고추가루 등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으로서 겨울철에 먹어야 제맛을 낼수 있다고 한다.

식혜는 해안지방에서 주로 담고있는데 생선의 종류에 따라 지방마다 즐기는 식혜도 다르다고 한다.

함경도에서는 가재미식혜와 도루메기식혜, 강릉도에서는 동래식혜, 경상도에서는 마른고기식혜를 잘 담고있다. 그중에서도 함경도의 가재미식혜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아주 높아 명산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신포, 흥린, 단천, 김책

등지에서 많이 담그는 가재미식혜는 12월부터 3월초에 나는 생선으로 담고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며 조밥을 넣는것이 특징이다.

《동의보감》에서는 가재미가 맛이 좋고 독성분이 없기때문에 많이 먹으면 허약한 몸을 추세우고 기력을 북돋아준다고 하였으며 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겨울철에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또한 조는 열을 조절하므로 대장을 리롭게 하고 당뇨병과 빈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가재미 생선에 조

밥을 섞어 담근 가재미식혜는 새롭고 쫄쫄득득하여 독특한 맛을 낼뿐아니라 영양가가 매우 높다.

발효식품인 식혜는 소화기 잘 되기때문에 환자나 로약자,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으로 매우 좋으며 말이나 고추가루가 들어가기때문에 김치에서 얻을수 있는 항암효과도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저게, 송술을 구들온도와 같 은 부두막에서 덥혀 새끼손가락으로 뜨겁지 않게 느껴질 때 적당한 온도로 여긴것은 먹는 사람, 먹는 공간, 먹는 음식의 3원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것으로 리해될수 있다.

우리 조선구들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보급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서서 생활하는 유럽식의 활동적인 생활문화에는 공기난방이 잘 어울리고 앉아서 사는 정적인 정착생활문화에는 구들난방이 잘 어울린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서양사람들속에서 일터에서 바빠 돌아가다가 집에 오면 구들을 벗고 바닥에 보 다 많은 육체를 접촉시켜 휴식하려는 지향이 늘어 나면서 구들의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동양회귀》(동양의 우수한 생활문화를 받아들이는것)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상품으로 구들 또는 온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온이 갈 때 우리나라에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밤이나 죽이나

본사기자